

“택배 플라스틱 폐기물, 재생원료로 재활용”

쿠광-LG화학, 친환경 경영 ‘동맹’

쿠광,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해 재사용 하거나 LG화학에 운송 LG화학, 재생원료로 생산

쿠광과 LG화학이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쿠광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고객과 물류센터로부터 수거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LG화학에 전달하고, LG화학은 회수된 폐기물을 재생 원료로 생산한다.

쿠광과 LG화학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쿠광은 로켓프레스 이용 고객들이 비닐과 완충재 등 플라스틱 폐기물을 반납할 수 있도록 무료 수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음 배송 때 배송직원이 이를 수거해 세척과 멸균 과정을 거쳐 재사용한다.

앞으로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세종시 거주 고객들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프레시백’에 넣어 반납할 수 있다. 쿠광은 고객들로부터 회수된 폐기물은 물론 쿠광 물류센터에서 사용된 팔레트 포장 폐기물 또한 LG화학으로 운송한다.

허성우 LG화학 석유화학 글로벌사업추진총괄 부사장은 “LG화학의 재활용 기술력과 쿠광의 물류 시스템이 결합해 환경과 사회를 위한 또 하나의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상용화시키고 자원 선순환 및 순환경제에도 앞장서는 지속가능 선도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쿠광과 LG화학은 6월부터 이번 프로그램 준비에 착수했으며 향후 협업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체결된 MOU는 쿠광과 LG화학이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에 대한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이언 브라운 쿠광 환경보건안전총괄 부사장은 “LG화학과의 협업을 통해 플라스틱을 재생하고 재활용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고객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친환경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쿠광의 엔드투엔드 방식 물류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최고의 고객경험으로 이어지며, 앞으로도 쿠광은 인프라 및 기술에 지속 투자함으로써 고객경험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KGC인삼공사, 품질관리 간간해진다

안전성검사 항목 139가지 추가

KGC인삼공사가 안전성검사 항목 139가지를 추가로 늘리며 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했다.

KGC인삼공사는 기존 293항목에 139항목을 추가, 최대 432가지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KGC인삼공사와 계약을 맺은 4290ha(헥타르) 규모의 9490개소 인삼포지 전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안전성 검사가 적용된다.

국내에는 지난 2019년부터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가 엄격해져 정부의 인삼 안전성 기준이 100여건에서 150여건으로 증가했다. 해외에서도 농작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KGC인삼공사는 선제적으로 검사항목을 최대 432가지로 늘려 안전성에 대한 최고의 기업으로 앞장섰다.

KGC인삼공사는 강화된 검사항목을 바탕으로 재배지 선정 단계서부터 토양



KGC인삼공사 소속 연구진이 연구소에서 제품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

관리에 2년, 인삼을 재배하는 6년을 거쳐, 최종 제품이 출하되기까지 총 8년 동안 안전성 검사를 7회 실시 중이다.

안전성 검사는 인삼을 심기 전 토양부터 실시한다. 국제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유해물질 중 하나인 유기염소계 성분이 0.01mg/kg이라도 검출되면 계약재배에서 제외시키는 등, 정관장만의 토양분석기준에 부합하는 곳에서만 인삼을 심을 수 있다.

/이세경 기자

동아ST·이셀, ‘K-mRNA 컨소시엄’ 합류

코로나19 백신 개발 탄력 연내 임상 1상 진입 목표 내년 상반기 상용화 계획

국산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결성된 ‘K-mRNA 컨소시엄’의 연구개발 행보가 지원군의 가세에 힘입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컨소시엄은 내년 상반기 조건부 허가 신청에 이어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약품, 에스티팜, GC녹십자와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국내 전문의약품 개발·생산 주요 제약사인 동아ST와 바이오 원부자재 전문기업 이셀이 컨소시엄에 추가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컨소시엄 출범 이후 사업 진행이 가속도를 내면서 원부자재 기업 등이 협력기관으로 합류하는 모양새다.

동아ST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

의 대표적 의약품 연구개발(R&D) 기업 중 하나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컨소시엄의 향후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관련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IND), 임상개발,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셀은 국내 최초로 일회용 세포배양기, 일회용 믹서백 등 일회용 바이오 프로세싱장비 및 소모품을 자체 개발한 국내의 대표적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문업체다.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mRNA 백신 생산체계 구축 과정에서 원부자재의 원활한 우선 공급에 기여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 6월 출범 당시 원·부자재 기업 등과 대학, 연구기관 등의 추가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가 참여에 이어 앞으로 mRNA 백신 개발과 대량 생산체계 구축에 이르는 전주기 성공모델의 신속한

수행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등에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현재 컨소시엄은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 STP2104의 연내 임상 1상 진입, 내년 상반기 조건부 허가에 이어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컨소시엄은 신속한 임상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매일 정례적인 정보공유와 상담을 진행하는 등 차질 없이 일정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2년말까지 전 국민 접종 물량인 mRNA 백신 1억 도즈 생산체계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맹위를 떨치고 있는 델타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코로나19 백신도 별도로 개발 중이다. 이와 관련, 컨소시엄의 임상 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에스티팜에서 추가로 mRNA 백신 후보물질 STP2130을 선정 후 전임상 효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오리온 ‘마켓오 오징어톡’ 인기

오리온은 신제품 ‘마켓오 오징어톡(사진)’이 맥주안주로 인기를 얻으며 출시 10주 만에 누적판매량 180만개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매출액으로 보면 약 20억원에 달한다. 마켓오 오징어톡은 감자 전분을 넣어 만든 스틱 모양에 오징어 원물을 넣어 ‘구운 오징어’의 감칠맛을 살린 제품이다. 장수 브랜드인 ‘오징어땅콩’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징어 채를 잘게 썰어 넣어 오징어 풍미를 극대화했다. /원은미 기자



동국제약 전립선비대증 복합제 임상3상 개시

한 알 복용으로 증상개선 도움 기대

동국제약이 세계 최초로 개발 중인 ‘두타스테리드’와 ‘타다라필’을 복합화한 전립선비대증 개량신약(DKF-313)에 대한 임상 3상을 시작했다.

동국제약은 이달 초 서울아산병원에서 첫 대상자에 대한 DKF-313 투약이 이뤄지며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전립선비대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립선 크기가 커져 각종 배뇨 기능에 이상을 주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제인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로 치료하는 것

이 효과적이지만, 개선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아서 증상 개선을 위한 여러 약제들을 병용하게 된다.

지난해 7월,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 받은 ‘DKF-313’은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두타스테리드와 증상 개선 효과가 탁월한 타다라필을 복합화한 개량신약으로, 한 알 복용으로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동시에 증상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치료제를 장기복용해야 하는 질환 특성상 1일 1회 복용으로 환자의 편의성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6년간 국내 독점권도 확보하게 된다. /이세경 기자



JW그룹, 9회 성천상 시상... 이미경 전문의에 1억 상금

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8일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제9회 성천상 시상식을 열고, 이미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전문의에게 상금 1억 원과 상패를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이종호 중외학술복지재단 이사장(JW그룹 명예회장·왼쪽)과 수상자인 이미경 재활의학과 전문의(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JW그룹

쿠광, 도쿄 한복판에 두 번째 매장 오픈

쿠광이 일본 도쿄 시내에 두 번째 스토어를 열었다고 9일 일본 현지 언론 등이 밝혔다. 시나가와구에 첫 스토어를 오픈한 이래 두 번째 매장 오픈으로 메구로와 시부야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도 쿠광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쿠광 재팬은 신규 스토어 오픈에 맞춰 신선식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주문해 빠른 배송을 경험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글로벌 비즈니스에 전념하고 있는 김범석 쿠광 창업자는 “쿠광은 서비스 지역 확장을 통해 일본 소비자들

에게 혁신적 쇼핑 경험을 제공하며 장기적 성장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일본 현지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배워 나감으로써 고객들이 ‘쿠광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감동시키는 것이 쿠광의 궁극적 목표다”고 밝혔다.

쿠광은 지난 6월 일본 시장에 처음 진출해 시나가와구에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의 쿠광 고객들은 쿠광 앱에서 야채, 육류, 달걀 등의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주문할 수 있으며, 주문 후 20분 안에 상품을 배송 받을 수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Weather forecast section for today (9th) and tomorrow (10th), including a map of Korea with regional temperatures and various weather indices like UV and pollen.